

사회

도심 무법질주 견인차 겁난다

역주행·중앙선 침범 등 곡예운전 일쑤... 시민들 불안

광주 작년 교통법규 위반 20%나 늘어

‘도로 위 무법자’인 견인차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애꿎은 운전자들의 안전만 위협받고 있다. 견인차 운전자들은 신호 위반은 물론 불법 주정차·역주행·중앙선 침범 등 갈수록 행태가 대담해져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고 사고위험도 커지고 있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견인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모두 100건이다. 이는 2009년 80건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견인

차 운전자들의 무질서한 운전습관이 선량한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S마트 앞길에서 승용차 간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견인차 3대가 곡예운전을 하며 현장에 달려왔다. 이들 운전자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신호위반을 한 뒤 교차로를 통과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지난 10일 오후 7시께에는 동구 대

인동에서 견인차 2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또 도로 갓길이나 교통섬 등지에서는 출동 대기 중인 견인차가 줄지어 있는 경우도 많아 원활한 차량흐름에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견인차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을 하는 이유는 정비업체에 사고차량을 견인해 줄 경우 수리 비용에 따라 자동차 한 대당 적게는 수십 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김모(34·남구 주월동)씨는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이렌을 울리며 거침없이 달리는 견인차나 교통섬 등지에서는 출동 대기 중인 견인차가 줄지어 있는 경우도 많아 원활한 차량흐름에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 관계자는 “일선서 단속에서는 단속인원이 많을 경우 경찰관 3명이 고각이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견인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신중 변태 유사 성행위 업주 내년부터 처벌 받는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신중 변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의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관련 법은 이들 업소에서 음란 행위가 이뤄질 때 행위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업소를 풍속업소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작 업주를 처벌하지 못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1일 경찰위원회와 통과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7월6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2조 2호로 반영하고 업주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는 키스방, 대발방, 인형체협방 등 신중 변태 업소가 포함돼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뿐 아니라 음란물 상영 및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만 해도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이 개정령안이 규제개혁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2월께에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나원침 (8385) 김장두



작살로 우럭잡은 스쿠버 벌금 낼판

‘취미나 생계냐가 처벌 기준

목포해양경찰 적발

“스킨 스쿠버 활동중 재미삼아 작살로 물고기 잡으면 처벌받습니다.”

목포해양경찰은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우럭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로 김모(33·광주 남구)씨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스킨 스쿠버 회원 등과 함께 스쿠버 활동을 하던 중 자신의 삼지창 작살을 이용해 우럭 2마리, 광어 1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비(非)어업인은 작살이나 특정 어구를 이

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또 바다낚시의 경우는 낚시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레저로 취급해 처벌하지 않으며, 맨손어업은 구역에 따라 허가 지역이나 신고 지역 또는 자유지역으로 나뉘어진다.

목포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수산물 채취시, 해역에 따라 또는 물고기 어종에 따라 허가되는 범위가 다양하다”면서 “바다에서 어부가 아닌 일반인이 어업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떤 행위가 금지돼 있는지 사전에 해양 경찰이나 행정관서에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난치병 환자돕기 ‘사랑나눔 도서바자회’ ‘조선대병원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도서바자회’가 22일 조선대병원 신관 1층에서 열린 가운데 환자 및 시민들이 책을 구입하고 있다. 이 행사는 26일까지 열리며, 수익금 일부는 저소득층 환자

‘리베이트 의혹’ 女교장 징계위 회부

도교육청 감사 처리 지연에 학사행정 혼란

특정 가구업자에게 납품 사례비를 요구하고, 교직원에게 인격비하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남 모 초등학교 교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해당 건에 대한 감사가 무려 한 달여 동안 진행된 데 해당 학교 전·현직 행정실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는 바람에 업무처리가 지연돼 학사행정 혼란을 불러왔다.

22일 전남도 교육청은 전남 A초교 교장 B씨가 학교 비품 구매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자택에 150만원 상당을 가구를 납품받았다는 가구업자의 진정서를 토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사실이 확인돼 B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B교장의 행위가 ‘포괄적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인격 모욕성 발언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이 학교 교사 C씨는 “장만제 신문고”에 올린 글에서 “B교장이 독단적이고 비교육적인 언행을 했다”고 투서했다.

그러나 해당 교장은 “40년 교직생활 중 부적절한 돈은 단 한 푼도 받아본 적 없다. 인격모독 발언도 교육적 원상담을 가구를 납품받았다는 가구업자의 진정서를 토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사실이 확인돼 B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B교장이 학교 비품 구매를 전후로 자택 가구를 납품받은 점에 주목, 납품업자와 전·현직 행정

여수서 또 비브리오패혈증 사망

전남 울들어 3명 숨져

여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의심환자가 또 사망해 올해 전남도내에서 관련 증상으로 숨진 환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전남도는 여수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최근 비브리오패혈증의 심증상을 보여 병원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22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7일 생선을 구입해 가정에서 먹은 후 이를 뒤부터 발진과 양다리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로써 지금까지 전남지역에서 비브리오패혈증이 의심돼 치료받다 숨진 환자는 3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2명은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는 최근 도내 해안갯벌과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원인균(Vibrio vulnificus)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 음식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필수기자 bungy@

할아버지가 키우던 손자 살해 후 자살

목포서... 6년전부터 양육

목포의 한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와 손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오전 6시30분께 목포시 목원동에 사는 김모(70) 할아버지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 할아버지의 손자(13)는 안방 침대에서 반드시 누운 채 숨져 있었다. 김 할아버지의 딸은 경찰에서 “손자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아버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가봤더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

했다.

김 할아버지는 6년 전 아들이 이혼하며 딸인 손자를 홀로 돌보며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김 할아버지는 손자가 자주 말썽을 일으켜 양육하는 데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할아버지가)손자를 키우는 것을 고민해왔다”는 유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손자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 기자 yousou@

전교조 교육장 무산

나주교육장 후보 시기평씨

전남에서 전교조 핵심 간부 출신이 지역 교육장에 공모(광주일보 7월8일 7면)해 관심을 모았으나 최종 인선에서 탈락했다.

22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공모제 나주교육장으로 추천된 2명 가운데 시기평 영감초 교장을 최종 후보로 교육감에 추천했다.

신 교장과 경쟁했던 전교조 전남지부장 출신 정연국 완도청산중 교장은 인사위에서 후보 추천 논란 끝에 고배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민노당 후원’에 따른 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한계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장이 교육장 도전에 나선 것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 있는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나주교육장 후보가 된 신 교장은 교감과 교장을 역임하고 장학사 등 전문직을 거쳤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혹비에 쓰러고- 양수기 훔쳐 팔아

○눈에 설치된 양수기를 훔친 뒤 이를 고물상에 되팔아 유혹비로 쓴 30대 절도범이 경찰서행.

○22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김모(32)씨는 지난 11일 밤 10시께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전모(44)씨의 눈에 설치된 시가 40만원 상당의 양수기 2대를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순천·보성 등지에서 양수기 8대를 훔쳤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양수기를 고물상에 4만~5만원씩을 받고 헐값에 넘겼는데, 경찰에서 “양수기를 팔아 받은 돈은 유혹비로 썼다”고 진술.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월 9일 공무원 시험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일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월 종합반 8월 14일~8월 27일 14주 평일 18:00~19:00 (2개월 분량) 토요일 10:00~12:00 (2개월 분량)	9월 종합반 8월 28일~9월 10일 14주 평일 18:00~19:00 (2개월 분량) 토요일 10:00~12:00 (2개월 분량)	법원서기보 8월 28일~9월 10일 14주 평일 18:00~19:00 (2개월 분량) 토요일 10:00~12:00 (2개월 분량)	지방소방직(전면) 8월 28일~9월 10일 14주 평일 18:00~19:00 (2개월 분량) 토요일 10:00~12:00 (2개월 분량)	명품 '강력면담' 8월 28일~9월 10일 14주 평일 18:00~19:00 (2개월 분량) 토요일 10:00~12:00 (2개월 분량)	7.9급 검찰직 8월 28일~9월 10일 14주 평일 18:00~19:00 (2개월 분량) 토요일 10:00~12:00 (2개월 분량)	9월 아간반 8월 28일~9월 10일 14주 평일 18:00~19:00 (2개월 분량) 토요일 10:00~12:00 (2개월 분량)	농업직/기술직 8월 28일~9월 10일 14주 평일 18:00~19:00 (2개월 분량) 토요일 10:00~12:00 (2개월 분량)	사회복지직 8월 28일~9월 10일 14주 평일 18:00~19:00 (2개월 분량) 토요일 10:00~12:00 (2개월 분량)	부시보(공공기관) 8월 28일~9월 10일 14주 평일 18:00~19:00 (2개월 분량) 토요일 10:00~12:00 (2개월 분량)
-------------------------------------------------------------------------------------------	-------------------------------------------------------------------------------------------	------------------------------------------------------------------------------------------	----------------------------------------------------------------------------------------------	----------------------------------------------------------------------------------------------	---------------------------------------------------------------------------------------------	-------------------------------------------------------------------------------------------	--------------------------------------------------------------------------------------------	------------------------------------------------------------------------------------------	----------------------------------------------------------------------------------------------

개강 9월 1일

선착순 모집, 조기마감주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관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